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소서

- 탄자니아 정부진, 조제숙 선교사



기도제목

1. 중학교 교사 신축 재정을 위해
2. 연말에 있을 학교 국사시험을 위해
3.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쳐 가난한 고아와 장애우들에게 200포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5월부터는 100여명의 중학교 아이들과 영어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귀한 아이들에게 말씀에 체험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과 7월에는 4 차례에 걸쳐 어린이 전도집회를 통해 총 인원650여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각 교회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사랑의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암세포가 2mm커졌습니다. 수술, 항암치료 받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9월에 다시 CT촬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이승배 선교사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암이 온전히 치유되어 속히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베트남 이원재 선교사

아내 장창선 선교사가 위암기와 자궁근종을 무사히 수술 후, 현재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치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콩팥에 종양이 발견 되었습니다. 80%정도 악성인 것으로 보고 있고 수술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암치료중인데 암이 줄어들지 않고 치료에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표적치료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GRACE 선교소식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로 이주한 분들을 위해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인 사역자를 파송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폴란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과 연합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에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마을을 다니며 마을마다 담대하게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식료품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모두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외쳤습니다.

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곳에서도 동일하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들은 귀들이 열리고, 열매들이 맺어져서 곳곳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세워짐을 보고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들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폴란드 1기 프레스 디아스가 열립니다. 먼저는 폴란드에서 시작하여, 루마니아, 헝가리와 동유럽으로 또 다시 확산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케냐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케냐 율형로, 운미나 선교사

선교소식

케냐는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곡식 수확량의 70%를 잃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과 축산업이 무너져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서둘러 교회들과 학교 및 학생들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역

2022년부터 신학교가 다시 시작되어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Grace Children Center 건물 건축 - 케냐 정부에서 자체 건물에서만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고아와 에이즈 과부사역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가

주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 하나님께 간곡히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렸다.

주님 자신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주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자들과 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간구이었다(요17장)

<1분당상 107-8월호>

-김대규 장로

성도를 위한 기도는 참 믿음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변화된 모습인 거룩하고 흠이 없어(갈5:22,23)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이었다. 이를 위 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선언하셨다(요 17:22). 고로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 영광을 소유할 수가 있다.

주님이 주신 영광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고 과분한 것이다. 먼저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이다. 바로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영광을 누리셨던 그 영광을 나눠 주신 것이다. 그 다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승리로 얻으신 구속의 영광으로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는 영광으로 의와 화평과 사랑의 다스림에의 동참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영생할 영광을 주신 것이다(딤후2:12,계20:4).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이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영광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친히 지으시고 만드신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사 43:7). 우리는 이런 존귀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하여 내 뜻을 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위에 생명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주님이 나누어 주신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우리는 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자이어야 함을 말한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 영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영광을 소유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가는 것뿐이다(벧전 2:19-21). 이것이 주를 믿는 참 신자이요, 참 신자의 삶인 것이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가신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모든 뜻 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동참할 때 주님이 주 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얻을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 다(눅 9:23). 여기서 나의 십자가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순종과 겸손, 고난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곧 지속적인 자기부인과 거룩함과 성결함, 희생과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영광이 나, 나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내 자신을 말한다. 여기서 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케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수적 차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 때 나의 삶과 사역들이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영광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삶과 하는 사역들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 영광이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드높이며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쓰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말은 이런 결과로 나타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주가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영광이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엡1:7-14).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롬5:1-11,고전 10:31)을 살고 있어야 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